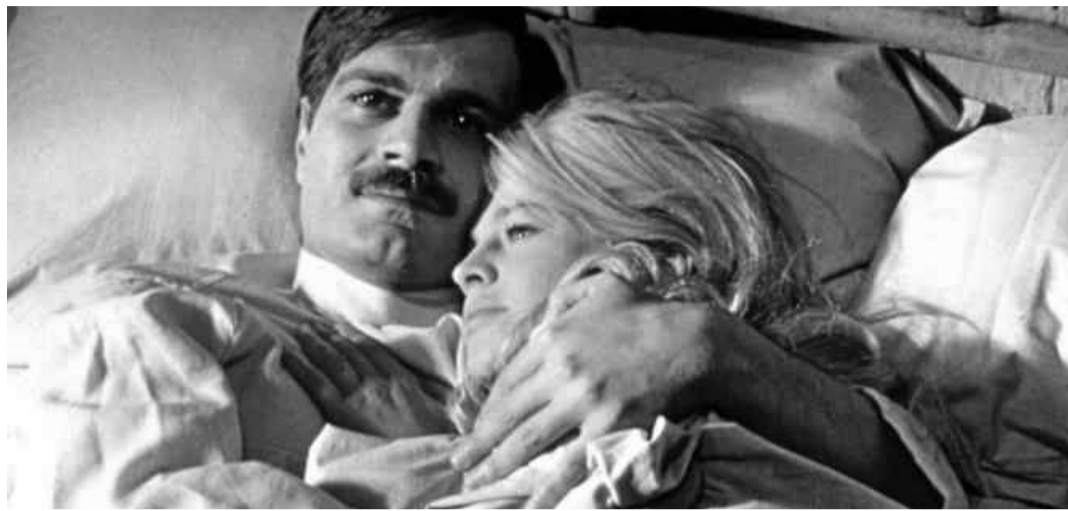


# 추억의 명작 영화 다시 만나다

연말·크리스마스 성수기 겨냥 '러브 액츄얼리' '아멜리에' 등 광주극장 18·24일 '닥터 지바고'



광주극장은 18일과 24일 데이비드 린 감독의 '닥터 지바고'(1965)를 상영한다.

연말을 맞아 '러브 액츄얼리', '타짜' 등 추억의 명작들이 재개봉, CGV 등 극장가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광주극장에서는 '닥터 지바고'를 상영해 눈길을 끈다.

먼저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 (2001)가 오는 15일 개봉 20주년을 기념해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몽마르트르의 풍차 카페 직원 '아멜리에'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사건을 그린 어른들의 동화로 전 세계 영화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작품은 개봉 당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재심에서는 15세 관람가로 등급이 조정됐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정석 '러브 액츄얼리' (2003)는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겨냥해 오는 23일 극장에 걸린다. 작품은 크리스마스 연휴 영국 런던에 사는 다양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겨 매 겨울 영화 팬들이 가장 자주 찾는 영화 중 하나다.

폴린 퍼스, 휴 그랜트, 키라 나이틀리, 에마 톰슨, 리암 니슨, 앤드루 링컨 등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으며 '노팅 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어바웃 타임' 등 유명 로맨스 영화를 선보인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연출했다.

도박을 소재로 한 한국 영화 중 최고 명작으로 꼽

히는 '타짜' (2006)는 앞서 지난 1일 15년 만에 재개봉했다. 허영만, 김세영의 만화가 원작인 이 작품은 타고난 도박사인 주인공 고니(조승우)가 타짜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렸다. 실감나는 도박 현장과 입체적인 등장인물, 극적인 서사가 특징이다.

개봉 당시에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약 56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크게 흥행했다. 최근 김해수, 김윤석, 유해진, 백윤식 등 주연 배우와 최 동훈 감독이 함께 촬영한 15주년 기념 화보가 영화 잡지 씨네21 커버를 장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민식이 중국 배우 장바이즈와 호흡을 맞춘 멜로 영화 '파이란' (2001)도 개봉 20주년을 맞아 지

난달 다시 관객을 찾았다. 삼류 건달 강재에게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중국인 아내 파이란의 부고가 전해지며 시작되는 두 사람의 엇갈린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광주극장에서는 18일과 24일 양일간 데이비드 린 감독의 '닥터 지바고' (1965)를 상영한다. 이 작품은 러시아 혁명 전후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인간이 겪는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그린 영화다. 오마 사리프가 의사이자 시인으로 등장, 시인의 상처받기 쉬운 감성과 순결한 지성, 두 여자를 모두 사랑하는 복잡한 심정을 소화해 냈다. 오마 사리프는 골든 글러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영화는 아카데미 각본상 등 5개 부문을 석권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치열한 역사의식 오롯이 담아낸 문단의 큰 어른

송기숙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

'녹두장군' '자랏골의 비가' 등 생생한 민중 목소리 작품에 투영

5일 별세한 송기숙 작가는 남도뿐 아니라 한국 소설문단에 큰 족적을 남긴 문단의 큰 어른이자 많은 후학들을 길러낸 스승이었다. 또한 고인은 민족 문학에 뿌리를 내린 우리시대의 마지막 리얼리스트였다.

고인은 1961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1964)을 졸업했다. 1965년과 1966년에 '현대문학'에 평론 '이상서설', '창작과정을 통해 본 손창섭'이 추천돼 문단에 나왔다. 이후 1966년 단편 '대리부부'로 재등단하는 등 소설가로써도 첫발을 내디뎠다.

그의 창작활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사회 모순을 개선하려는 비판적 인식과 행동은 고스란히 작품에 투영됐다. 다시 말해 그의 소설은 지배계층 억압에 신음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작품에 담으려는 문학적 실천으로 수렴됐다.

'송기숙 삶과 문학'을 펴낸 바 있는 조은숙 박사



는 "선생님은 특히 교육과 시대정신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다"며 "시대의 모순은 사회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작가적 신념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대하소설 '녹두장군'은 부패한 봉건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소설로 형상화한 대표작이다. 작가는 힘 없고 이름 없는 민중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소설 속 전봉준은 탐관오리 조병갑의 죄상을 폭로하고 '제폭구민(除暴救民)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함'의 가치를 든다.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기 위해 사발통문을 돌리고 죽장으로 맞서는 결기를 보인다.

'자랏골의 비가'도 고인의 문학세계와 삶의 지향

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왜곡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은 생전의 작가가 추구했던 정신과 맞닿아 있다. 특히 전라도 방언과 자유자재로 구사한 만연체 문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역동성을 발휘한다.

이밖에 소설집 '백의민족', '도깨비 잔치', '개는 왜 짖는가' 등과 장편 '암태도', '은내골 기행', '오월의 미소' 등에서 보여주었던 치열한 문제의식과 소설적 성취는 간단치 않다.

고인은 1973년 현대문학상을 비롯해 만해문학상(1994), 금호예술상(1995), 요산문학상(1996) 등을 수상했다.

동향 출신인 한승원 소설가는 "고인은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작가의 삶을 살아왔다"며 "엄혹한 시대 독재체제에 항거한 탓에 고문과 투옥 등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함께 70년대 동인활동을 했던 문순태 소설가도 "남도는 원래 시문학이 강했지만 송 교수 이후로 소설문학의 지형이 폭넓게 넓혀졌다"며 "무엇보다 민족문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린 분이었는데, 별세 소식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알립니다

## 한국 문단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2022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9일(목)까지 접수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 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21년 12월 9일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급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기타 유의 사항
  - 팩스나 이메일, 손글씨 원고는 받지 않으며 A4에 출력한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 접수 시 맨 앞장과 뒷장에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주소를 첨부해주시고.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가 표절일 경우 당선취소됩니다.
  - 결봉투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22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光州日報社

##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영화로

그라시아스합창단 'For unto us' 8~9일 IYF광주문화체육센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영화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매년 크리스마스 칸타타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올해는 영화 'For unto us' (사진)를 준비했다. 8~9일 (오후 3시30분·7시30분) IYF광주문화체육센터.

이번 시간은 코로나로 지쳐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90분 분량의 영화 'For unto us'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옛 시대를 재현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시대적인 배경에 맞춰 드라마틱한 멜로디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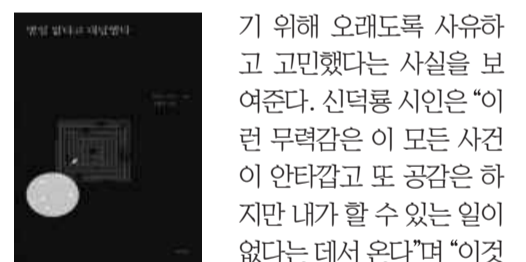


영화에서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더하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Let It Snow', 'Silver Bells' 등 친숙한 크리스마스 캐럴 18곡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70-7530-5215.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목포 출신 정채경 시인 '별일 없다고 대답했다' 출간

"나의 시로 누군가에게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나 외에 누가 내 시에 귀 기울여 줄까?" 목포 출신 정채경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별일 없다고 대답했다' (문학부)를 펴냈다.

모두 52편의 시가 수록된 작품집은 비극적 세계를 응시하는 시인의 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집 제목 '별일 없다'에는 다분히 역설적인 인식이 투영돼 있다. 세상은 별일로 넘쳐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의미다. 반어적 진술의 울림이 큰 것은 시어를 찾



기 위해 오래도록 사유하고 고민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덕용 시인은 "이런 무력감은 이 모든 사건이 안타깝고 또 공감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데서 온다"며 "이것이 시를 쓰는 이유이고 또 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아닐 수 없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